

앨런 코쿤(Alan Colquhoun)의 전통건축 해석학을 넘어서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displacement)하기’에서
‘과거를 재활성화(reactivation) 하기’로-

이 동 인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전통건축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주로 과거와의 절연을 전제로 그들의 건축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포스트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과거와의 연계를 전제로 그들의 건축행위를 한다. 전자는 건축이 과거의 유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굳건히 믿고 현재 일어나는 삶의 행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능화, 경제화 시켜 이를 건축화 하는데 주력한다. 후자는 건축의 기능화의 한계를 간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더니스트 건축이 등장하기 전에 발생했던 유형학(typology)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건축에 적용하고자 하나 과거와의 엄청난 격차로 인해 과거의 과편들을 재현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

건축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건축언어에 대한 시각 차이에 기인한다.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이 건축의 기표성에 관심을 두었다면 포스트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기의성에 관심을 표명했다.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원래의 건축언어가 갖고 있던 의미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삶을 디

자인 방법론을 통해 공학적으로 마음껏 해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태여 전통적 건축으로부터 무엇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삶을 기능적 시스템의 힘을 빌어 환원적으로 재구축 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건축적 규범에 얽매어 왔던 건축행위에 비추어 보면 대단한 변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극히 자의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능해석을 통해 구축된 건축을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리하여 모더니스트 건축은 결국 건축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다.

모더니즘 이전의 건축에서는 주로 모방과 유형이 건축의 주된 기능이었으므로 건축을 통한 의사소통은 대중에게조차도 아주 쉽게 이루어졌다. 모방이나 유형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것이다. 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이제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공하는 실용성에게 서서히 압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도취된 인간들이 그것에 몰입되어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좌충우돌하게 되자 포스트모더니스트 건축이 등장했다. 포스트모더니스

트 건축이 등장한 근원적인 이유는 기능에 몰입된 건축이 상실한 언어감각의 회복을 위해서였다. 최근 건축에서 일고 있는 유형학의 강조는 이러한 경향의 한 측면이다.

최근의 건축 이론가들인 페레즈-고메즈(Alberto Pérez-Gómez) 노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등은 이러한 추세에 편성한 이들이다. 이들은 근대건축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너무 기술위주로 흘렀다고 간주하면서 근대건축의 기술지상주의 및 전통과의 단절성을 맹공하고 있다. 그들의 근대건축에 대한 공격은 실증주의(positivism)에 반(反)한 것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류인 자신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모더니스트 건축을 찬찬히 들여다보지를 않았다. 더구나 그들이 근대건축을 공격할 당시의 세계 분위기는 국제주의 양식인 박스유형의 건축에 대한 지루함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을 숭양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코쿤은 근대건축을 상기의 이론가들처럼 마구잡이로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들처럼 주마간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근대건축을 보지 않고 그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는 근대건축의 본원을 추적해보고자 하였다. 근대건축을 다른 시대의 건축들과 분리시켜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의 흐름과 기술의 변천 속에서 해석학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렇게 전통 해석학의 틀 속에서 건축을 조망함으로써 코쿤은 근대건축이 일부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전통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현시적으로 드러내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해석학에 대한 코쿤의 총체적인 생각은 건축이란 근원적으로 인습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습은 추상성을 띤 규범이며 또한 불변적이다. 건축이란 이 불변성의 규범 속에서 가변성을 갖고 현실을 수용하여 구체화되어 나간다는 것이 그의 전통해석학의 골격인 듯하다. 코쿤은 과학기술이라는 경험적 이성이 이상적 이성과 변증법적으로 결합되어 건축에 수

용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근대건축이 발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대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은 경험적 이성이 무조건적으로 건축에 수용되는 패러다임이 근대건축이라고 믿고 있다. 이상적 이성의 통제 없이 수용된 경험적 이성은 구체적인 현실 감각은 갖고 있으나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다. 근대 건축가들이나 이론가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오류는 건축언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 탓이라고 코쿤은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건축언어 역시 다른 언어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한 코쿤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를 시조로 하고 있는 구조주의 이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사고의 핵심용어인 “유형과 변형”은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이라는 개념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 또한 인습적인 언어처럼 영속하는 규범(유형)과 변모하는 경험치가 변증법적으로 합일한다고 코쿤은 믿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코쿤이 건축을 인습적인 언어와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근대건축이 기능과 표현 위주로 흘러 건축적 랑그를 상실하게 되면 언어로서 보편타당성을 상실하고 단지 주관적 감정표현에만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코쿤은 다행히도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가 일반적인 근대건축가들과는 달리 규범을 존중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건축비평시론: 근대건축과 역사의 변환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¹⁾, 근대성과 고전적 전통 (Modernity and Classical Tradition)²⁾ 등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코쿤은 알토(Alvar Aalto)의 작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

- 1) Alan Colquhoun,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9.
- 2) Alan Colquhoun, Modernity and Classical Tradition, Architectural Essays 1980-1987,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9

장을 취한다. 건축의 빠를인 기능과 표현에 너무 무게를 둔 결과 그의 작품은 르 코르뷔지에에 비해 규범이 약화되어 완결이 덜 된 것처럼 보인다고 코쿤은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코쿤은 건축이 인습적인 언어이지 자연적인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건축이 인습적 언어라는 코쿤의 생각은 너무나 확고하여 다른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건축은 인습적 언어이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자신의 전통건축의 해석학이 쉽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가정에 집착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건축은 한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즉 건축은 산문적인 언어로 추락한 것이다. 건축은 원인, 결과의 대응치로 만들어지는 피상적 언어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새롭게 드러내는 이차적 혹은 시적 언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건축을 단지 개념적 언어의 전달수단으로 볼 경우에는 지각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언어인 자연언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연언어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수준의 토론에 그치고 만다. 코쿤이 전통을 상실한 근대건축가를 폄하하는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이 자연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연언어를 피상적으로만 보면 감각적이며 철학적 깊이를 좋아하는 코쿤이 이러한 언어만을 독립적으로 수용할 리가 없다.

코쿤의 생각과는 달리 자연언어는 다른 장르의 예술에서 꼭 필요한 언어이다. 회화나 조각 등의 예술은 고래로부터 자연 속에 존재하는 대상물의 등가물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표현해 왔다. 여기에는 사전에 주입된 개념이 없었으며 단지 지각적인 인식만 존재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장르의 예술을 우리는 시각적이라고 불렀고 일반 문자와는 구분하였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면 새삼스러운 의문이 제기된다. 건축이 평장히 시각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코쿤은 근대건축이 자연언어로 표출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였는가? 그가 건축을 임의적인

언어로 몰아 부치는 것은 너무 편협된 사고가 아닌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자연언어의 사용은 전통을 말살하고 과거를 지워버리는 행위인가? 시각적 언어의 표출인 회화 등에는 전통이나 과거가 말살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코쿤의 전통해석학은 다시 숙고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코쿤의 전통해석학인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하기'가 너무나 인습적 언어에 매달리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인 '과거를 재활성화하기'를 모색해 본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그가 간과하고 넘어간 근대건축의 자연언어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의 가능성을 살핀다. 이 자연언어를 인습언어를 통해 재활성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산문으로 전락된 건축을 시로 회복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과거를 재활성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코쿤의 전통건축 해석학 :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하기'

코쿤의 해석학의 기본 출발점은 과학 및 기술은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방향을 결정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방향은 결국 직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과학 및 기술은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인간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과학 및 기술은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직관에 의하여 버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쿤은 이 직관이 기술이나 과학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버무리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순수한 직관에 의한 버무림이고 다른 하나는 유형에 의한 버무림이다. 순수 직관에 의한 기능의 버무림을 코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분석적이고 귀납적인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는 기능주의에서는 형태의 결정 과정이 공백으로 남겨졌다. 이 빈 여백은 환원주의적 미학으로 메워졌다. 이 미학에

따르면 직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차원의 도움 없이 기본적 기능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형태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정은 형태와 내용 사이의 의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공학 결정주의 이론에 따르면 내용은 서로 관련성 있는 기능들--이 기능들이란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행위들의 환원치이다--의 모임이다. 이러한 기능의 복합체들은 그 자체가 이성적인 구조로 해석된 의미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띠지 않는 형태로 전환된다. 객관적이고 기능적인 상황의 사실들이 고스란히 주관적이고 정서적 상황의 사실들로 전환된 것이다. 표현주의에 의하면 이들은 서로 등가적이다.³⁾

상기의 기술은 순수 직관이 기능을 버무림으로써 건축의 형태가 바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쿤은 이러한 방식의 형태구성은 표현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이고 바로 이 표현주의가 근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주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형들의 배제와 직관의 자유로움에 대한 믿음을 확신한 근대건축이론은 20세기에 유행한 표현에 관한 일반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론은 특정 화가들의 이론과 작업에서 명백히 보여진다. 특히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그의 책인 점, 선, 면(Point and Line to Plane)에서 그의 작품들이 기초한 이론들을 개관하고 있다. 표현주의 이론은, 근대건축이론이 모든 건축의 역사적 형태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예술의 역사에 관한 표명들을 모조리 거부했다. 표현주의에서는 이러한 표명들은 화석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 이론은 형태가 우리

에게 직접적으로 그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외관적 혹은 표현적 내용을 가진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견해를 반박했다. 고프리치(E. H. Gombrich)의 목마에 관한 명상(Meditations on Hobby Horse)은 그 같은 반박들 중에 가장 확신에 찬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칸딘스키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형태들의 배열에 인습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그림의 배열을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다. 고프리치의 가설은 외관의 형태는 표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 모호하고 이것은 오직 특별한 문화적 분위기 내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위해 그는 색깔의 정서적인 질(質)의 예로서 교통신호를 든다. 우리는 외관적 의미보다는 인습적 의미를 더 중요시한다. 외관적 의미가 중요하다면 적색등은 행위 및 나아감으로, 녹색등은 멈춤, 조용, 조심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⁴⁾

고프리치가 칸딘스키의 순수직관에 의한 형태놀음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코쿤 역시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의 형태놀음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학은 선개념들의 도움 없이 순수직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술은 선개념에 해당하는 유형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코쿤의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예술의 시작은 모방, 관습, 전통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공예품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들은 실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수공예품에 내포된 실용성과 교환성은 과학과 기술이 현저히 발달하기 이전에는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차츰 인간은 실용성에만 마음을 두게 되었

3) Colquhoun, Mo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p.49.

4) Ibid., p. 49.

다. 그래서 일부 수공업품들에 내포된 실용성은 기능이라는 이름 아래 물리학의 일반법칙들이라는 수식으로 대체되었고 그 실용성은 의사교환성과 결별하고 나와 독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의사교환성이 상실된 수공업품들은 인공물로 전락되었고 인간의 추론에 의해 실용성이 계량화, 표준화되면서 과거의 유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각종 인공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실용성만을 고려하여 만들어 낼 경우 이 인공물은 과거처럼 교환성을 갖지 않으므로 사회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용으로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의사소통력을 갖는 수공업품은 예술로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의 그늘 아래에는 합리성과 실용성이, 예술의 그늘 아래에는 의사소통성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예술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통적인 규범인 유형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물에는 유형이 침투할 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원적으로 의사소통성이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물도 여전히 순수직관을 통해 버무려지므로 유형 밖의 주관적인 정서가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공물을 통해 주관적인 정서가 표출될지라도 이것의 의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와는 달리 유형에 의해 버무려진 예술은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가 있다.

코쿤은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예술과 과학 및 기술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건축이 예술 영역에 속한다면 당연히 의사소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건축의 등장으로 인해 건축의 유형이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코쿤은 주장한다. 여기서 그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코쿤은 아래의 글을 통해 유형의 의미를 언어에 빗대어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예술작품에서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현재의 작품에 드러

난 사실들보다는 그것에 부여된 가치들이 더 중요시된다. 이런 점에서 예술작품은 언어와 닮았다. 단순하게 정서를 표출하는 언어는 일련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표현이다. 언어란 실은 기본 정서들이 일관된 인지적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된 재현의 복합 시스템이다. 선형적인 언어를 구축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다. 그러한 언어를 구축하는 능력은 현재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를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와 유사하게 건축과 같이 형태를 만드는 재현 시스템은 선형적인 재현시스템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언어든 건축이든 간에 형식적 재현이 그것의 밖에 있는 선형적 본질로 환원되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형태는 단지 반사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유형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복합체(typological problem - solution complexes)로서 하나의 인습적 시스템을 가정하여야 한다.⁵⁾

단순히 정서를 표출하는 언어와는 달리 유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체로서의 언어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표현주의와 같은 외관상의 형태에 의한 감정의 표출이지만 후자는 유형에 근원을 둔 의사소통가능성을 지닌 감정의 표출인 것이다. 건축이란 결국 인습적인 시스템을 갖춘 언어로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당연히 건축적인 랑그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랑그가 전제되어 이 토대 위에서 건축적 빠롤이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건축언어란 랑그와 빠롤의 맞물림을 통해서만 구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코쿤의 기본가정을 상기의 고찰에서 명백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가정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의 전통해석학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드러난 그의 논문인 “르 꼬르뷔지에와 개념들의 대체(Displacement of Concepts in Le Corbusier)”⁶⁾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

5) Ibid., p.49.

6) 이 논문은 코쿤의 책인 Essays in Architectural

다. 아래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코쿤의 르 꼬르뷔지에에 대한 선호와 일부 근대건축가들에 대한 혐오는 바로 이러한 그의 노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건축의 전통이나 기존 건물에 대한 참조라는 면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은 그의 동료들인 대다수의 근대건축가들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 르 꼬르뷔지에를 포함하여 1920년대의 근대건축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론적 언급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로부터 유래되거나 새로운 기능들에 의해 운명 지워진 건축에 매혹되어 전통을 거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르 꼬르뷔지에에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전통의 원칙들을 환기시키고 그것들을 새로운 해결책에 맞추어 각색하거나 혹은 반박함으로써 건축적 전통을 끊임없이 언급한다. 그러므로 그의 건축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다.⁷⁾

건축이 선형적 건축언어인 랑그를 갖고 있다고 믿는 코쿤의 입장으로서 르 꼬르뷔지에가 건축적 전통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대건축이 건축의 랑그를 부인함으로써 의성어처럼 뿌리 없이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는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코쿤의 입장을 바로 상기의 인용문이 말해주고 있다. 코쿤은 르 꼬르뷔지에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대부분의 근대건축들처럼 의성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건축의 랑그에 뿌리를 둔 심지 깊은 언어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혁신이란 어느 것도 이전의 관행을 반박하여야 하며 그 관행을 포함시키는 것은 군더더기임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섯 가지 요소들이 각각 건물요소들의 전통적 분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르 꼬르뷔지에는 원래의 관행과 새로운 규칙은 상호 은유적 대응체임을, 그리고 새로운 것은 부재된 과거의 것들을 참조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⁸⁾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과거의 선례들을 가지며 이들이 참조되었을 때에만 언어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지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을 통해서 이해된다. 문화적인 진공상태에서 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지각적으로 그것들의 느낌을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상기의 곰브리치의 지적이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적색등이나 녹색등이 색깔로부터 나오는 지각적 인상을 통해서 의미가 결정된 것이 아닌 것처럼 다섯 가지 요소도 지각적 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코쿤은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구체적으로 과거의 개념들을 어떻게 대체하였는지 다음의 인용문에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르 꼬르뷔지에는 새로운 건축을 위해 규칙들을 만들어낸 유일한 근대건축가였다. 그는 논쟁의 기초를 형태보다는 내용의 문제 혹은 외관의 표현적 미학에 둔 대부분의 근대 건축이론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아카데미한 전통의 규칙체계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는 르 꼬르뷔지에가 다섯 가지 요소들에서 규정한 규칙들로 입증된다. 다섯 가지 요소들은 각각 기존의 관행에서 출발해서 자신들을 뒤집는다. 예를 들면 필로티의 이용은 고전의 포디움(podium)의 뒤집기이다. 그것은 지반으로부터 피애노노빌레(piano nobile) 혹은 고단의 고전적 분리를 수용하나 이 분리를 매스로서보다 오히려 빈 공간으로 해석한다. 긴 띠창(fenêtre en longueur)은 고전적인 창인 이디쿨(aedicule)의 반박이다. 지붕테라스는 경사지붕과 상반되며 박공층을 열린 공간

*Criticism*의 2장, The Type and its Transformation에 실려있음. pp. 51-66.

7) Ibid., p.51.

8) Ibid., p.51.

으로 교체시켰다. 자유파사드는 창개구부들의 규칙적인 배열을 자유롭게 구성된 표면으로 대체시켰다. 자유평면은 수직적으로 지속되는 내력벽의 필요로 인해 공간배분을 한정하던 원칙들을 반박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들 대신에 기능적 편의에 따라 결정된 커튼벽이 자유롭게 배열되었다.⁹⁾

다섯 가지 요소들은 각자의 랑그 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이 랑그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변모한다. 다시 말하면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빠를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빠를은 표현주의에서처럼 랑그를 상실한 언어가 아니라 랑그를 바탕으로 한 언어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감각이나 표현이 건축 안으로 흡입되는데 표현주의에서처럼 아무런 바탕없이 즉흥적인 주관적 감각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랑그를 통해 일시성의 기술을 흡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랑그가 바로 유형인 것이다. 이 유형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기술이라는 일시적 현실과 공존할 때에만 재해석이 가능해진다. 코쿤은 이 유형과 기술을 대조의 주된 짝으로 “이성”과 “감성”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러한 대조의 주된 짝은 전통적인 “高(high)” 건축과 근대산업세계의 특징인 기술이다. 전자는 이상적 인식론과 영원한 진리들(특별한 문화전통에 간직된)이고 후자는 탈가치의 과학적 경험주의를 선호하며 전자를 부인한다. 르 꼬르뷔지에는 그의 글에서 이러한 이분법을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언급만 거듭하고 있다. “이성”과 “감성”은 대리보충적 능력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성은 때로는 실증주의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때로는 “정신의 만족(satisfaction de l'esprit)”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감수성과 실제적 편의라는 두 가지가 모두 종속되는 더 높은 질서의 경험과 관련지어

졌다.¹⁰⁾

지금까지 이 장에서 언급한 코쿤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유형은 실제적 편의라는 기능으로 대체되면서 급속도로 파괴되기 시작했고 이 파괴의 작업은 대부분의 근대건축가들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르 꼬르뷔지에는 이러한 움직임과는 차이를 두면서 꾸준히 과거의 역사를 참조하는 선에서 그의 작품을 빚어나갔다. 새로운 기술과 설계방법론이 등장함에 따라 이것들이 순수직관에 의하여 버무러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근대건축의 표현주의적 미학이다. 이 표현주의 미학은 유형과 결별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건축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으나 반면 너무나 유형과 멀리 떨어져 건축적 랑그를 상실하는 데 일조하는 이론이기도 했다. 이에 반하여 르 꼬르뷔지에는 탈가치적인 기능과 그에 수반되는 감수성을 랑그라는 유형학 속에 수용함으로써 과거의 건축적 개념인 유형을 근대의 기술로 조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의 코쿤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르 꼬르뷔지에는 근대건축을 구축하는 골격적인 개념으로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하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코쿤의 전통해석학을 넘어서(始) : ‘과거를 재활성화(reactivation)하기’

코쿤의 말처럼 과연 르 꼬르뷔지가 과거를 개념 혹은 유형으로 대체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건축이라는 예술이 너무 단순화 된다고 생각된다. 예술작품이 알팍한 개념의 조작행위, 다시 말하면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하기’를 통해서 얻어진다면 그것은 과학적 개념의 조작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예술은 있는 사실을 원인, 결과의 방식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를

9) Ibid., 51.

10) Ibid., 63.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행위라고 본다. 이는 이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등의 현상철학자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예술이란 단순히 사물을 모방(imitation)하는 행위나 재현(representation)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드러내는(presentation)' 행위이다.

그런데 새롭게 드러내는 행위는 기존의 언어 방식을 통해서는 곤란하다. 기존의 언어는 이미 원인, 결과라는 인과론에 의하여 조건반응적으로 서로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관습적인 의미 외에 새로움을 찾아내기란 무척 어렵다.

기존의 문자언어는 피상적으로는 알팍한 의미인 사전적 혹은 문자적 의미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코쿤의 말처럼 유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르 꼬르뷔지에의 다섯 가지 요소는 필로티, 긴 창, 옥상정원, 자유평면, 자유파사드 등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지칭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유형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아무리 기존의 의미를 뛰어넘고 싶어도 유형이라는 큰 관습적 의미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유형에 종속된 건축을 함으로써 유형 밖에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드러내려는 행위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성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다보니 그것을 통해 대화는 가능하나 새로운 세계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모더니즘이 유형을 기피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롭게 드러나는 것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본다.

불행하게도 코쿤은 이 새롭게 드러나는 세계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여 버렸다. 그리고 이 세계를 과학적 경험주의와 이로부터 파생된 감수성이 혼합된 세계로 규정해 버렸다. 그는 이 세계가 이상적 이성인 규범과 결합되었을 때에만 언어로서 정당한 가치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계를 축소시켜버렸다.

그는 이렇게 결합된 언어를 인습적언어 혹은 임의언어로 부르면서 이에 우선권을 두었다. 이와는 달리 과학적 경험주의와 이에서 파생된 표현주의를 의성어와 같은 자연언어로 보았다. 그의 건축언어관은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쉬르에 기반을 둔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가 자연언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코쿤이 소홀히 한 자연언어에 대해 재고해 본다면 우리는 그가 주장한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하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언어는 시각언어로, 임의언어는 문자언어로 간주된다. 그래서 회화나 조각 등은 시각언어로서 문학은 문자언어로 분류된다. 즉, 시각언어와 문자언어는 이분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둘은 갈라설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만일 자연언어가 표현주의 언어처럼 한 개인의 입출할 수 없는 주관적 감정의 등가물로서 존재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임의언어의 기능과 가치가 단지 인위적으로 약속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 또한 의미가 없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나는 언어는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위와 자연이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자연물이나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자연언어도 또 인간이 인습적으로 만들어낸 임의언어도 진정한 언어가 될 수 없다. 어느 쪽의 언어도 진정한 언어의 한 측면적 관찰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 습관화된 의미에 이르거나 혹은 더 나아가 심층적으로 인습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이성으로 대체하더라도 결국 그 언어는 산문적 혹은 문자적인 의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습적인 언어를 시적인 언어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가? 최초의 모더니스트 미학자로 꼽히는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래의 글은 인습적 언어 혹은 산문적 언어가 어떻게 시각적 언어로 전환하여 시적 언어로 변환되는가를 보여준다.

시는 반드시 임의적 사인을 자연적 사인의 단계로 올리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시가 산문과 구분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임의적 사인들이 시가 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들은 음성의 들림(sonorities), 말의 질서(word order), 운율(meter), 문채와 수식(figures and tropes), 비유(comparison)등 등이다.¹¹⁾

임의적 사인들은 단지 문자적 언어로서만 존재하다가 새로운 배열방식으로 재배열됨에 따라 자연적 사인으로 변신되면서 참신한 빛을 발하게 된다. 여태껏 관습적으로 보아왔던 사물에게서 새로움이 드러난다. 인습적 언어들의 새로운 배열로 인해 결코 드러날 수 없었던 신선한 자연언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언어는 단지 고정화되고 진부화된 시각적 사인이 아니라 인습적 삶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제공한다. 상기의 레싱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인은 바로 감각들의 집합체이다. 다시 말하면 음성의 들림, 말의 질서, 운율, 문채와 수식, 비유 등등은 결국 시각, 촉각, 리듬, 정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사인은 바로 그것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사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물 혹은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산문적으로 받아들이던 관습적 사인이 이와 같이 새로운 것으로 변신되는 것은 바로 사인을 사용하는 자의 동기(motivation), 즉 임의적 사인을 통해서 자연적 사인을 회복하려는 예술가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동기 열망이 관습적 사인을 자연적 사인으로 끌

어올리는 것이다. “시와 그림은 인습적 일 뿐 아니라 자연적이다. 결론적으로 시와 그림은 높고 낮은 두 종류의 형태를 가진 언어이다”¹²⁾라고 레싱은 말한다. 시와 그림은 인습적인 사인으로 인식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시각적인 사인으로 지각된다. 예술가의 동기에 의하여 임의언어 속에서 고정화되었던 세계가 깨어지고 이제 자연언어가 구축되어 끊임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언어는 소쉬르나 코쿤의 주장처럼 임의적 일수가 없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란 어차피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의 표현이므로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과 분리되어 인간들만의 약속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언어란 상기의 기술처럼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집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내-존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¹³⁾ 그러므로 진정한 언어는 상기에 열거된 감각들을 통해 세계-내-존재라는 맥락의 질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의 맥락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지역성이란 바로 이 맥락의 질을 의미한다. 이 맥락의 질은 지역이라는 세계의 공통의 가치가 되어 지역 거주자의 의사소통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형성된 언어는 임의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다. 임의언어는 너무나 작의적이고 관습적이며 자연언어 또한 입증하기에 곤란한 주관적이고 불안정한 언어로서 어느 쪽도 결국은 단편화 혹은 파편화된 언어이므로 진정한 언어가 될 수가 없다.

임의적 사인이 재배열되면서 자연적 사인을 생성시키게 되는데 이 때 생성되는 사인은 표현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순간적, 즉각적이며 주관적인 감수성의 등가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내-존재를 끊임없이 재활성화(reactivation)시키는 간주관(inter-subjective)적인 등가물 혹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낸다. 이

11) Tzvetan Todorov, *Theories of Symbol*,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p.144에서 재인용.

12) Ibid., pp.144-5에서 재인용.

13) 이에 관한 토론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ohn Macquarrie &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62, pp. 107-122.

예술작품 혹은 지각물은 당연히 지역성을 표출한다. 하이데거는 이 지각물이 미학적 광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 광채야말로 세계의 빛남과 개체의 창조적 존재의 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¹⁴⁾.

코쿤의 전통해석학을 넘어서 (終)

: 身土不二의 光彩

코쿤은 모더니스트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능주의와 표현주의적 경향 속에 숨어 있는 창조적 존재의 가능성을 너무 백안시하였다. 그리하여 언어는 임의적인 것이라는 폼브리치의 주장에 너무 동조한 나머지 기능주의와 표현주의적 경향이 유형으로 걸려져 건축으로 흡입될 때에만 건축은 유효한 언어로서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코쿤의 사고의 출발점은 상당히 과거 지향적이다. 근대건축 이전에 존재하였던 유형의 의사소통성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용적인 건축으로 흘러,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코쿤은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건축의 의사소통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학에 근거한 건축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그의 추론을 입증하기 위해 코쿤은 르 꼬르뷔지에가 유형학에 근거하여 작품활동을 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리고는 르 꼬르뷔지에의 다섯 가지 요소들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작품의 주된 특징이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하기’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의 몇 가지의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의 건축 전체를 대표하는 요소들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건축을 언어로서 하나의 사인이라고 본다면 건축이란 당연히 감각의 복합체일 것이다. 즉 시각적, 촉각적, 리듬적, 정서적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감각의 복합체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르 꼬르뷔지에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이러한 감각의 복합체인 사인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그는 노출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듬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를 창출한 건축가이다. 또한 인간, 인간의 눈, 배 등을 건축적 은유나 비유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감각의 복합체가 만들어내는 자연언어가 그의 임의언어의 틈 사이로 분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코쿤의 글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임의언어의 틈 사이를 통해 그의 건물이 속한 지역성의 가치가 특이하게 분출되고 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코쿤도 이 점을 그의 두 권의 저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다. 코쿤은 그의 논문인 “유형학과 디자인 방법(Typology and Design Method)”의 주개념인 ‘과거를 개념으로 대체하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효하는 르 꼬르뷔지에의 글을 인용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나는 지성이 존재하는 한 나의 건물 비올라(Vignola)의 모듈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모니는 예술가가 다루는 오브제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통상교 회당을 통해 나는 건축이란 기둥의 문제가 아니라 조소성의 이벤트들임을 깨달았다. 조소성의 이벤트들은 학자적 혹은 학문적 상투어가 아니다. 그것들은 자유롭고 또 무수하다¹⁵⁾

우리는 건축을 조소성의 이벤트로 본 르 꼬르뷔지에가 상기의 글을 통해 얼마나 건축언어를 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소성의 이벤트를 통해 습관적인 건축언어에서 벗어날 때 접할 수 있는 신선하게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는 세계의 광채를 그가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유형을 옹호하기 위해 코쿤이 아무리 견강부회(牽強附會)했어도 상기의 글은 전적으로 건축의 유형을 부정하는 글임에 틀림없다. 건축의 유형들로서는 상투적인 건축언어를 남발할 수밖에 없음을 르 꼬르뷔지에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14) Martin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lated by Albert Hofstadter, New York, Harper & Row, 1971, pp.54.

15) Colquoun,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p.46.

보인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의언어의 재배열을 통해 자연언어를 생성시켜 감각의 복합체라는 간주관적 언어를 재활성화 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자연언어든 임의언어든 언어로서의 깊이를 코쿰은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 알파하게 판단함으로써 건축언어의 재활성화를 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글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기능주의는 실용성 위주의 건축으로 과거의 건축언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자연언어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자연언어가 과거의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대건축가들은 이 언어의 탄생을 너무 표피적으로 파악하여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로 생각했다. 과거의 인습적 언어의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생성된 이 자연언어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감각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구성된 새로운 사인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언어는 과거를 파괴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인습적인 언어들 틈 사이에 숨어 있는 과거의 건축언어를 재활성화 시키는 시적 언어이었다. 이 건축언어는 유형과 같은 거대한 은유속에 건축을 감금시켜 뒤흔들지는 않는다. 이 언어는 인습화 혹은 습관화되어 식상화된 건축언어와 우연성의 자연이 서로간에 통풍이 되도록 바람구멍을 만들어 준다. 이 바람구멍 속으로 통풍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건축은 신토불이의 광채를 새롭게 발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olquhoun, Allan Mo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Architectural Essays 1980-1987,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1.
2. Colquhoun, Allan, Essays in Architectural

- Criticism: 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1.
3.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 Mcquarry and E. Robinson,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4. Heidegger, Martin, On the Way to Language, translated by Peter D. Hertz,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5. Heidegger, Martin, The Basic Problems of Phenomenology, translated by Albert Hofstadter, Bloomington a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6. Lessing, G. Ephraim, Lacoón: An Essay on the Limits of Poetr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McCormick, E. Alle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
7. Todorov, Tzvetan, Theories of Symbol,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82.

Beyond Alan Colquhoun's Architectural Hermeneutics of Tradition

- from 'conceptual displacement of the past'
to 'the reactivation of the past'-

LEE, Dong-Eon

(Assistant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Alan Colquhoun's architectural hermeneutics of tradition, 'conceptual displacement of the past.' The second aim is to overcome the limit of it, and to suggest new architectural hermeneutics of tradition, 'the reactivation of the past.' The architectural work is reduced by Colquhoun to typology or arbitrary language because he believes that without arbitrary language natural language is not able to work effectively. However, he ignores that two languages cannot be separable. When they are separated the key to natural language is understood to be an unverifiable similarity between a sense perception and its correspondence in the architectural object, while the key to arbitrary language becomes mere artificial agreement on the value and function of the linguistic sign.

Therefore, natural language is appropriate only when it permits spontaneous combinations of sensory data within complex structures which emerge from, and support, complex human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the shining of the world and of the possibility of creative being in each individual thing). Only when architecture is translated into this kind of language, can it reactivate the world's past, and become poetic.